

# 강진만에 친환경 최첨단 낚시어선 '소오강호' 출항

### 도암 망호선착장에서 진수식 개최



강진군이 지난 11일 오후 2시 도암 망호선착장에서 SDN(주)이 친환경적으로 건조한 알루미늄 연안복합어선(낚시어선)인 '소오강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군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바다 낚시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어촌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망호항'을 낚시어선 거점항으로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키워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번 진수식은 그 시작을 알리는 행사여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은 진수식을 계기로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 중인 '뉴딜 300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망호항의 어항 기초시설을 보강 및 정비할 확충하는 한편, 어항 내 유희수역에 낚시어선 계류시설과 낚시관광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

해 강진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지역발전의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진수되는 낚시어선 '소오강호'는 망호 마을기업인 '강호영어조합법인(대표조합원 최민규)'에서 발주하고 SDN(주)에서 건조한 최첨단 알루미늄어선이다. 총톤수 9.77톤, 전장 20m, 넓이 4m, 기속된 75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속력은 33노트, 승선인원은 22명이다.

특히, 최첨단 탑재는 물론, 가족 단위 생활낚시로 발전하고 있는 바다낚시문화에 부응하여 냉난방과 함께 안락한 선실 및 침실과 조리 및 수세화장실, TV, 냉장고 등 내부시설을 갖춰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 어선이다.

1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취항할 예정인 '소오강호'는 친환경 알루미늄선박으로 어선 현대화와 표준화를 선도하는 어촌의 롤모델 어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대한민국 대표 꽃축제 '인증'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13일 폐막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개막일이 연기되면서 기간은 단축됐지만, 개막식 이전부터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100만 관객이 다녀가는 대성공을 거뒀다.

올해 노란꽃잔치는 연이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황룡강 3.2km 구간에 핀 풍성한 가을꽃으로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테마정원과 짜임새 있는 꽃길을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으며, 특히 황미르랜드에 펼쳐진 1만 평 규모의 해바라기정원과 두바이 미러럴 가든의 작품을 재현한 유엔아이(YOU & I)가든, 핫카이드 모리노 가든을 옮겨놓은 듯한 드레스 가든 등 예술적으로 연출된 정원들이 인기를 끌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흥행의 주요 요소였다. 2,600여 마리의 앵무새를 만날 수 있는 앵무새 특별체험관은 올해 공작새와 토끼, 병아리, 아기 타조 등 다양한 동물들을 야외시설에 추가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다. 그 밖에 귀농인의 성공사례를 알릴 수 있는 가든팜페어와 엘로우 주말마켓 등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대폭 개선된 축제지의 먹거리도 많은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장성=박종영 기자

# 진도군,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진도군이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3,343톤을 매입한다.

군은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산물벼 7,500가마, 건조벼 67,085가마, 친환경벼 9,000가마 등 총 83,585가마(40kg)이며, 농식품부에서 논 타작물재배 농가 인센티브를 받은 이후 매입 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알까지, 건조벼는 11월 초순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40kg 한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 원은 농가로 수매한 당일에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 품종검정제도가 도입되어 매입대상 농가 중 5% 농가의 시료를 채취 해

DNA 검사 후 우리군 매입품종인 피품, 신동진 외의 품종이 20% 이상 혼입 시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공비축미곡의 품질 개선 및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 품종 혼입 방지를 위해 사전 매입 준비를 철저히 해 품종검정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 18일 개막

### 내달 3일까지 17일간

가을 국화 축제의 대명사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17일간 함평군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국향대전은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타 지역보다 일주일 먼저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기획 작품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축제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중앙광장에는 실제 크기의 독립문(높이 14.28m)과 백범 김구상, 매화버들 등의 대형 국화

조형물 점이 설치된다.

4계절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다양한 조경 작품과 핑크 물리 꽃길, 국화동산 등도 축제장 곳곳에 새로 조성됐다.

오직 국향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한 줄기 1,538 송이의 천간작과 황금역새, 핑크물리 등으로 꾸며진 역새 동산,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국향대교와 9층 꽃탑 등도 올해 역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국향대전은 함평 축제 최초로 야간개장을 실시한다.

작년부터 야산차게 추진했던 축제장 야간경관사업이 올해 일부 마무리되면서 임시 개장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경관조명을 비롯한 야간조형물 총 600여 점 정도가 설치됐다.

야간개장은 축제기간 내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에는 건물 외벽에 LED조명을 켜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임시정부와 국화, 함평 나비 등을 색다르게 표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나비축제 때 큰 관심을 끌었던 황금박쥐 조형물에 이어, 박쥐가 갖는 오복(장부, 부귀, 강령, 유희덕, 고종명)을 함축한 '오복포란'이 새롭게 전시되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이 밖에도 앵무새 먹이주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통기타?국악?클래식 등의 문화예술 공연, 가을 정취에 딱 맞는 군림미술관 소장품전 역시 축제장 내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영암군, 대한민국 책 읽는 지차체 선정

영암군은 2년 연속 '대한민국 책 읽는 지차체 대상'에 선정되어 11일 서울 영등포구 KR컨벤션웨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제4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차체 대상'은 책 읽는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는 우수 지차체를 발굴·육성하여 지차체와 건전한 독서문화를 형성 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평소 대한민국 독서 출판 발전에 이바지하고하고 기획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책 읽는 대한민국 발

전에 크게 기여한 지차체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 단체는 영암군을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양주시, 충청북도 증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등 총6개 지차체가 선정되었다.

영암군 영암도서관은 총 22관(공공2, 작은18, 학교마을2)이며, 1인당 장서 수는 4.6권으로 전국 최고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무안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

무안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출고된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600대에 대해 총 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23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보조사업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잔여 사업량 370대에 대한 추가지원신청서를 1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 조건은 공고일(2019.9.9.) 기준 무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5등급 경유차 또는 3중의 건설기계 중 신청자(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